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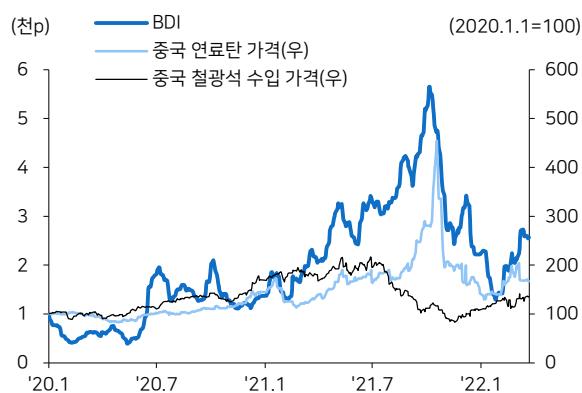
2022. 3. 25(금)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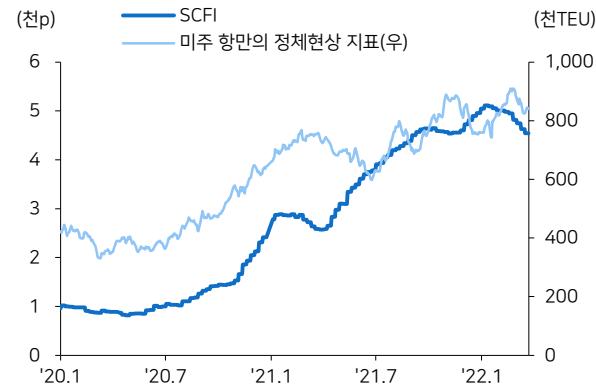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67.0p(-8.0p DoD)



컨테이너운임(SC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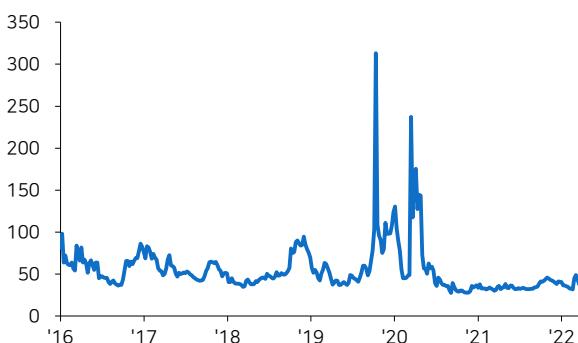
4,540.3(-84.8p WoW)



VLCC Spot Rate

37.7(-6.2p WoW)

(WS) VLCC 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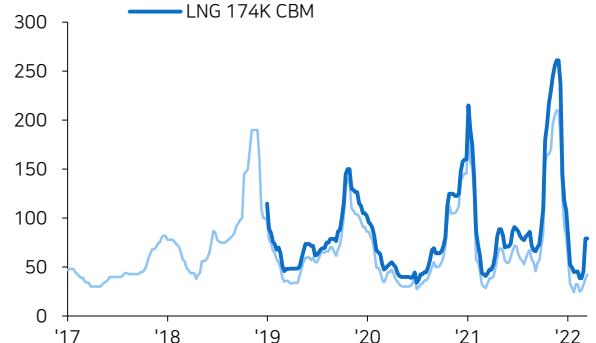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42.5p(+4.5p WoW)

79.3p(+0.0p WoW)

(천달러/일) LNG 160K CBM

(천달러/일) LNG 174K 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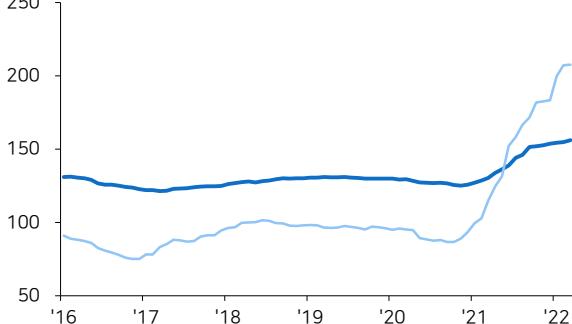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1p(+0.3p WoW)

207.7p(+0.1p WoW)

(p) 신조선가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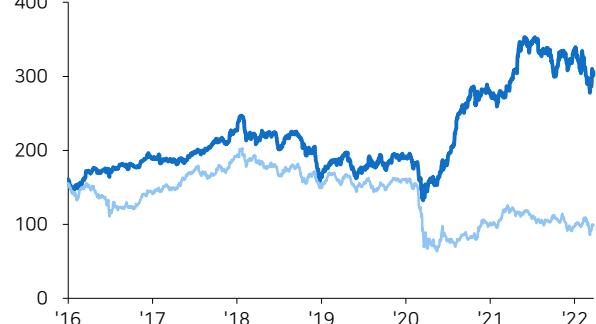


항공시장 지표

301.1p(-5.3p DoD)

98.6p(-0.6p DoD)

(p) MSCI 항공화물 index MSCI 여객 Index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Leading shipping players eye tighter markets but downside risks remain

유럽의 에너지 확보 노력이 벌크, 원유 및 가스 운송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됨. 유럽의 LNG수요가 치솟아 석탄 및 원유 톤마일 수요까지 상승시킴. 최근 4주간 전세계 FSRU가 모두 가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유럽은 필요한 LNG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석탄, 원유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됨. 타이트한 운송시장과 이에 따른 고운임이 전망된다고 보도됨. Angelicoussis Group에 따르면, 2024, 2025년 인도되는 신조선까지 현재 계약문의가 많다고 보도됨. (Tradewinds)

Nickel price hike hits stainless-steel tanker and gas carrier newbuildings

니켈강 가격 급등으로 스테인리스강과 기타 합금 함유량이 높은 탱커 가격이 상승하며 조선업체들은 스테인리스강 탱커 마케팅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됨. LNG선, LPG선 등이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탑재함. 니켈강 가격은 2021년 15,000달러에서 현재 280,000달러로 2배 가량 상승함. 글로벌 니켈 생산량의 3분의 2이상이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사용되는데, 2021년 기준 최대 생산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순임. (Tradewinds)

US planning on committing LNG to Europe as Putin demands rubles

미국이 유럽에 2022년말까지 LNG 1,500만CBM을 수출할 계획임. 러시아의 가스대금을 루블로만 받겠다는 행태에 따른 결정으로,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돋기 위함으로 설명함. 유럽은 연말까지 러시아 가스 의존도의 3분의 2를 줄일 계획임. (Tradewinds)

상장 항공사 4곳, 1년 새 직원 1,010명 짐썼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항공사 4곳이 직원 수를 1,000명 이상 줄인 것으로 보도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의 직원 수 합산 기준임. 한편, 대형항공사는 화물 사업 호황에 따라 인력 수요가 커지며 인당 평균 급여액은 증가함. (머니s)

Venture Global LNG signs up for supersize LNG carrier trio in South Korea

대우조선해양이 Venture Global LNG로부터 200,000CBM급 LNG운반선 3척을 7.11억 달러에 수주했다고 공시함. 2025년 12월말까지 인도될 예정임.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목표치인 89억달러의 47%를 달성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Broker BRS sees potential for a shipyard supercycle

선박브로커 BRS가 최근 수요 회복세에 따른 조선 슈퍼사이클을 전망함. 1) 발주 러쉬 및 선가 상승, 2) 감소한 조선소, 3) 친환경 규제에 따른 노후선박 교체를 근거로 설명함. 한편, 평균 폐선 선령이 25년인 것을 감안했을때, 금번 슈퍼사이클은 2025년 중반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함. (Tradewinds)